순창군, 겨울철 전지훈련단 유치 총력전

국가대표 정구·유소년 야구 등 선수단 훈련일정 확정
전국 규모 대회도 연이어 진행…지역경기 활성화 기대

순창군이 스포츠대회 유치로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본 데 이어 전지훈련단 유치에도 뛰어드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팔덕다용도보조구장(야구장·축구장) 완공에 따른 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동계시즌(12월~2월) 야구, 정구 전지훈련단 유치와 대회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다음 달 2일부터 10일간 국가대표 정구 선수단이 순창에서 촌외훈련을 하며, 내년 1월 28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꿈나무 정구 선수 동계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또 내년 1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유소년, 중학교 야구단 전지훈련 일정을 확정 지었다.

전지훈련이 끝난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제5회 순창군수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를, 2월 22~28일에는 제1회 순창군수기 전국중학교 야구대회 등 전국 규모의 야구대회를 연이어 진행한다.

야구 외에도 정구와 테니스 종목에서도 각종 대회 유치를 확정했다. 동계시즌 전지훈련 중인 1월 3일부터 7일까지 전국초등학교 테니스 스토브리그와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중학교 테니스 스토브리그가 열린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7~22일 제61회 전국유소년정구대회, 2월에는 6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 한국 대학 정구 연맹전이 기다리고 있다.

군은 2020년 동계시즌 야구 전지훈련단 맞이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과 제설 대책 등을 강구 중이며, 전지훈련 선수단에 고구마를 구워주고 어묵을 끓여주는 감성 마케팅도 펼치며 전방위적으로 전지훈련단 유치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점차 힘들어지고 있는 관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타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위등 장흥군의회 의장 등 의원들이 정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 결의를 다지고 있다. 〈장흥군의회 제공〉

장흥군의회, WTO 지위 포기 대책마련 촉구

전남지역 쌀·양파 농산물 최저가 보장 건의안 채택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로 전남 지역 대부분 지자체가 쌀과 양파, 마늘 등의 생산농가에 직격탄이 예상되는 가운데 장흥군의회(의장 위등)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흥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5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상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채택한 건의안은 "WTO 개도국 포기로 인해 장흥군이 전형적인 농업 경제기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희생 당할수만 없다"며 "주식인 쌀 외에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기초농산물에 대한 최저생산비 보장과 아울러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생산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빨라져 대다수 농촌지역이 소멸위기로 몰려 국가 존립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장흥군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출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남원 춘향테마파크 야간 경관 '환상적'

LED 은하수 조명 설치…춘향·몽룡 하트터널 등 포토존도

남원시 춘향테마파크가 주간에 이어 야간의 아름다움도 선보인다.

남원시에 따르면 춘향테마파크의 야간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끝내고 29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시는 총 2억2000만원을 투입해 공원 입구 화단 및 진입부와 향토박물관 주변에 LED 은하수 조명을 설치했다. 춘향테마파크의 상징인 춘향과 몽룡, 하트터널, 하트존 등에 포토존도 설치했다.

특히 야간에도 방문객 관심을 끌 수 있는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불빛을 달았다. 시는 야간경관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야간경관사업을 보완·정비하고 '춘향테마파크 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활성화 방안도 찾는다.

춘향테마파크는 '춘향전'을 배경으로 다섯 마당으로 조성된 테마공원으로 2004년 5월 조성됐다. 이곳은 동절기(11월~3월)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하절기(4월~10월)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개방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 겨울 하얀 눈과 조화를 이룰 야간의 춘향테마파크는 화려한 은하수 불빛과 잘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것"이라며 "주변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테마공원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 춘향테마파크에 조성된 야간경관조명 포토존에서 한 관광객이 셀카를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신안 가거도 주민 '1일 생활권시대'

가거도~목포 직항로 쾌속선 투입 매일 2차례 운항
해상교통 여건 개선…국토 최서남단 관광객 늘듯

국토 최서남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주민들의 1일 생활권 시대가 열렸다.

도서지역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에 선정된 가거도-목포 직항 항로가 지난 27일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주)남해고속 쾌속선 1척이 추가 투입돼 가거도에서 정박·출항하고 목포를 한 차례 왕복(편도 3시간) 운항한다.

기존 목포에서 출항하는 1차례 왕복(편도 4시간 30분) 운항 편에 더해 목포-가거도를 매일 2차례 왕복 운항하게 돼 가거도의 해상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그만큼 일반 관광객도 늘어날 전망이다.

1일 생활권 구축항로는 1일 2차례 왕복 이상 운항하는 항로이다. 해수부와 신안군이 협업해 여객선 추가 운항으로 발생하는 운항 결손액을 여객선사에 보조한다.

쾌속선 운항시간은 가거도 오전 8시 출항, 목포 오전 11시 10분 도착이다. 목포 출항은 오후 2시 30분(하절기는 오후 3시 30분), 가거도 오후 5시 40분(하절기 오후 6시 40분) 도착이다.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 지역의 해상교통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낙도지역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 준공영제 지원 대상 항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정읍방문의 해' 맞아 고속버스 부착광고 시작

정읍시가 '2019~2020 정읍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해 고속버스 부착광고를 시작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중앙고속 버스에 '일상에 지친 당신의 힐링이 되는 정감(井感, 정읍에 가면 감동이 있다) 여행, 정읍'을 새겨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한 달여 간의 일정으로 중앙고속 전국 80개 노선 318대에 래핑광고(rapping advertising)를 하고 있다.〈사진〉

광고를 부착한 고속버스는 서울~대전, 동서울~대구, 인천~부산 등 국내 주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국민의 관심을 유도한다.

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인문학적 자산을 토대로 정읍을 국내 관광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정읍방문의 해로 운영 중이다.

첫해인 올해는 방문의 해 선포식을 비롯해 정읍만의 콘텐츠 발굴과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시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해인 내년에는 올해 추진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

고창 '생태관광 누에오디 체험' 저탄소 명소 '우뚝'

환경산업기술원 '탄소발자국' 인증 연장

고창군은 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의 '고창 생태관광 누에오디 체험'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탄소 발자국 '인증을 연장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탄소 발자국은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 채취에서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생태관광 누에오디체험'은 아산면 용계마을에서 마을 특산품인 오디를 수확하고 누에 먹이주기를 체험하는 어린이 대상 친환경 교육프로그램이다.

체험객이 버스나 카풀차량 이용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며 탄소배출량 감소에 동참한다.

학생당 9.92㎏ 이산화탄소(자가용 대비 87% 감소)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2016년 첫 인증을 받았다.

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는 자연친화적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보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인증을 받고 3년 만에 재평가를 통해 연장이 확정됐다.

군은 저탄소제품 인증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친환경체험 명소로 지역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이 앞으로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받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